윤요셉, 마리아 email: jekwanyoon@gmail.com / haemiyoon2001@gmail.com

11 월의

중순, 이제 올해도 두달 남짓 남았네요. 유난히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지납니다. 아내는 새해 첫날부터 낌새를 챗었는데 이래저래 무딘 저는 그러련 하고 지나갔던 크지 않은 일(자동차 베터리 나가는 일이 1 월 1 일 예배 후에 일어났다는 것 말고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기에)로 시작해서 올 한해를 정신없이 지네게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과 가족들의 사망소식을 듣는 일이 그 픽크였지만 그 일 외에도 아직까지도 붙잡고 씨름하는 일들이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반백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제 생애 한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동안 아내와 예배중에 '왜이렇게 많은 일들이 끊이질 않을까?' 버거워하며 자주 나누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일들이라고 생각하며 붙잡고 씨름한 거의 모든 일들이 돌아보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였습니다.
대부분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안고 함께 씨름하다보니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벅차했던 것이지요.
'과연 이제껏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을 이렇게 까지 붙잡고 씨름한 적이 있었나?' 돌아보면서요~~

그러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가 BAM(Business as Mission)이라는 삶과 사역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것이 wholistic ministry, 즉 총체적 접근과 전인적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역의 대상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wholistic 한 접근과 변화가 요구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이 우리 ㅈ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불러 함께 온전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에…
최근 에베소서를 통해 묵상하게 하시는 내용 이기도합니다. ㄱㄹ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늘을 사는 삶의 모습이 들어나는 곳이 바로 아내와

남편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직원과 주인 사이,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는 아프리카 T 국에서 하늘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능케 해주는 함께 하는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예,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늘 ㅅ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ㄱㄷ를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3 년 11 월에 윤요셉, 마리아 올림

ㄱㄷ제목...

1. 함께 일하는 M 은 함께 예배하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20 대 초반인데 어려서부터 너무 힘든 삶을 살며 건강한 자아와 사고력을 개발하지 못했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법에 약합니다. 작년 말부터 여러가지 영적 경험을 통해 ㅎㄴ님의 만지심을 강하게 체험하고 있는데 워낙 기초가 불안한 친구이기에 갈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붙들려야하는데 그것이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ㅎㄴ님을 기회가 될때마다 주변인들에게 나누기를 힘쓰는 형제이기에 이 형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설때 어떤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무게가 그의 삶에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손모아 주세요.
2. H 는 무슬림이지만 참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청년입니다. 일을 매우 잘하지는 않지만 그 성품이 맘에 들어 함께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ㅎㄴ님을 이야기 할 때 늘 마음이 동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ㅎㄴ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들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3. A 는 늘 위의 부르심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한 지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에 확신이 없습니다. 한걸음 더 나간 만큼 그의 삶에 체워질 아버지의 은혜는 분명한데 이런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그것은 분명 도전이기도합니다. 강권하시는 ㄱㄹ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남부 아프리카에서 온 직원들이 신분문제로 한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도울수 있는데 까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그들 또한 이 총체적인 사역의 장으로 들어와 함께 성장

하고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그들의 삶에 완전한 안전과 안정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데 저희가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아랍이 소란가운데 있습니다. T국도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크고 작은 데모가 하루가 멀게 일어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상황 뿐 아니라 튀국을 포함한 주변 아랍 국가들 위에 참 평화와 용서 용납이 일어나길,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정한 은혜가 임하길 손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각사람과 공동체 위에도 현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진중하게 다가와 우리를 반응의 자리로 세우길 원합니다.